



## 2. 하늘나라의 썩어지지 않는 기업의 소망 (4절)

우리는 죽을 때, 이 땅에서의 희생과 노력으로 쌓아놓은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어느 것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 )에 대한 좋은 추억들입니다. ( )의 사랑, ( )의 웃음, ( )의 헌신, ( )의 격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향한 ( )의 사랑과 헌신을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 )은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인을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삶과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인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좋은 추억이 다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고인에 대한 좋은 추억들이 더 생각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성경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과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썩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기도, 신앙생활과 희생을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 3. 말세의 때에 구원을 얻는 소망 (5절)

지금 우리 모두, ( )님의 살아 생전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봅시다.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품에 있는 ( )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장 원하실까요? 그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우리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을 통해 내가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오는 것 아닐까요?

소원하기는 오늘 참석한 우리 모두 ( )이 원하는 장소에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육신적인 죽음은 궁극적으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결국 다 썩어 없어질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만이 살아있는 소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새로운 세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6,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받을 영광과 칭찬과 존귀가 있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이 말씀이 온전한 믿음으로 천국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가족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